

144곳 전통시장 할인·체험행사… “동행축제 함께 해요”

역대 최대 2만9000여개 점포 참여 추석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마련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혜택 풍성



서울 금천구에 있는 비단길현대시장에서 고객들이 행사를 구경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 곳곳이 ‘동행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어느 때보다 긴 최장 열흘까지 연휴가 이어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에서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졌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동행축제에도 동참할 수 있다.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9월에 열리는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9000여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해 한 달간 축제를 펼친다. 또 전국 144곳의 전통시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는 가볼만한 문화관광형시장도 많다.

부산 망미중앙시장, 울산번개시장, 전남 무안전통시장, 서울 비단길현대시장이 대표적이다.

부산 수영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망미중앙시장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고 등하굣길 아이들의 친근한 골목길 역할도 한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장보기 체험’은 방문객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9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에도 15회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 김장 담그기 체험’, ‘나도 동화속 주인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망미중앙시장 관계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시장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에 있는 울산번개시장은 올해 문

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됐다. 울산번개시장은 이달 동행축제 기간 중 ‘수요시장 장날’을 총 10회 진행한다.

수요시장 장날에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5000원과 홍보기념품 등 푸짐한 상품을 선물한다. 동행축제와 연계한 ‘수요야시장’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0회 운영한다.

전남 무안전통시장은 ‘캠핑 품은 황토골 토요일야시장’을 중심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9월에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총 4회 운영하며 ▲미식존 ▲체험존 ▲공연존으로 야시장을

구성해 먹거리, 체험 부스, 문화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동행축제 기간 중 시장 내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행복할인 행사’를 펼친다. 제품이나 음식값의 일부를 직접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비단길현대시장은 ‘국경 없는 비단길 축제’와 ‘비단길 야시장’을 연계해 하루 종일 축제를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비단길 축제와 야시장 행사는 낮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나라의 느낌을 살린 민속의상 행진과 다채로운 공연의 ‘국경 없는 비단길 축제’도 진행한다. ‘비단길 야시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생맥주 교환권을 제공하는 맥주 축제를 열고 신선한 먹거리와 이벤트로 방문객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한편 9월 동행축제 기간 중에는 이들 시장 외에도 전통시장, 야시장, 지역축제 등에서 문화공연, 체험행사, 상품 기획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한항공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대한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웹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의 품질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는 2021년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해왔다.

대한항공 공식 모바일 앱 ‘대한항공 My’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의 접근성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대한항공이 모든 고객에게 평등하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 선도 기업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SKB, ‘웨어 인터넷’ 출시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1회선으로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동시에 최대 10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 ‘웨어 인터넷’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형 병원, 학원, 사무실 등의 업종에서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PC 여러 대를 동시에 이용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니즈를 파악해 기존 최대 2대까지 동시 이용 가능한 단말 대수를 10대까지 확대 제공하는 웨어 인터넷 상품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요금의 경우 웨어 기가라이트 기준 월 3만6300원이다. IPTV 결합 시 월 3만800원, 요금가족결합 시 월 2만5300원 등 결합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웨어 인터넷과 든든 웨어 인터넷 모두 기가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와이파이 증폭기인 윈즈도 월 1650원만 추가하면 이용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양성운 기자 ysw@

KBI그룹, 美 BESS 사업 본격 추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올 초 ‘에너지 아메리카’ 설립 루틸 BESS 홀딩스 지분 투자



지난 4일 ‘미국 텍사스 Rutile BESS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식’에 관련 임직원들과 방문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KBI그룹

KBI그룹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KBI그룹은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과 협력해 200MWh급 대용량 BESS 사업인 ‘루틸 BES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 초 미국 델라웨어주에 ‘KBI 에너지 아메리카’를 설립했다.

KBI 에너지는 KBI국인산업과 KBI메탈의 자금 조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루틸 BESS 홀딩스에 14.2%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KBI그룹은 올해 3월 남부발전 및 알

원들은 지난 4일 실질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는 ‘미국 텍사스 Rutile BESS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루틸 BESS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전력시장에서 한국 기업 주도하에 최초로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다. 1억2000만 달러의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 전력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미 텍사스주 러널스 카운티에 설치되는 BESS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다양하게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다. 이후 전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저장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 거래 사업으로 구글·오라클 등

파자산운용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과 관련 임직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캠퍼스와 테슬라·애플 등 글로벌 제조업체의 제조·연구개발 시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BI그룹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에너지 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보한다. 산업소재 부문 계열사인 KBI메탈, KBI알로이, KBI코스모링크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한상 부회장은 “이번 사업 추진은 그룹 계열사의 기존 전통 에너지 사업에서 미래 에너지 전락산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로 미국 에너지 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 몽골 재개발 지역 난방열 공급

하수열 활용한 난방열 사업 추진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청에서 열린 ‘하수열을 활용한 난방열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왼쪽)과 다비달라이 울란바토르시 부시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청에서 ‘하수열을 활용한 난방열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울란바토르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재개발 주거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회사는 2026년 상반기까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성과 기술력이 검증되면 하반기부터 15년간 BOT(건설·운영 후 이전) 방식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건설 예정인 4000세대 규모 주택단지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원관희 기자 wkh@

신세계I&C,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AI 플랫폼 ‘스파로스 데브엑스’ 적용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는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개발 플랫폼 ‘스파로스 데브엑스’를 IT 서비스 전 과정에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파로스 데브엑스’에는 코딩 에이전트를 비롯한 AI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돼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품질 점검 ▲운영 단계 등 전체 IT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스파로스 데브엑스는 단순한 코딩 자동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IT 서비

스의 업무 단계별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 작성, 소스코드 생성, 테스트를 통한 오류 검증 등 모든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인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도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시스템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부 문서, 개인정보, 소스코드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ik1@

코오롱베니트 CCTV 내 영상정보 비식별 솔루션 선택

코오롱베니트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 기업 인피닉과 협력해 CCTV 영상정보 비식별처리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코오롱베니트가 인피닉의 AI 비식별처리 솔루션 ‘하이드 AI’의 성능을 높일 하드웨어를 결합해 고객 활용도를 제고한 프리패키지 상품이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솔루션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 의무에 대응해 주택·건물 건설사 및 시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영상 열람 요청에 따른 수동 편집의 복잡성과 비용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